

東醫寶鑑에 나타난 刺絡療法에 대한 고찰

권영완 · 이상룡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he Review of the Blood-Letting Therapy Written in the Donguibogam

Young-Wan Kwon, Sang-Ryong Lee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s designed to improve the practical possibility using Blood-Letting therapy through reviewing the literature recorded in the Donguibogam.

Methods : Records on Blood-Letting therapy have been extracted from Donguibogam. First all articles containing the key words 'Hyul (血)' and 'Rak (絡)' have been extracted. Of them, records associated with Blood-Letting therapy had been sited and classified in terms of searching patterns for the Blood-Letting area, instruments for Bleeding-Letting, cautions and side effects for the practice, applicable symptoms, acupoints/extraordinary acupoints, and Blood-Letting areas.

Results : The regions capable of Blood-Letting are generally engaged with abnormal skin color such as black, bluish red, dark purple, dark blue, etc, and localized collection of fibrous exudate. There are several instruments used for Blood-Letting therapy; Samreongchim (三陵鍼), Chogyong (草莖), Pichim (鉞鍼), Lodaeguan (蘆管尖), Sachim (砂鍼), Saechim (細鍼), Gichim (螞鍼), Eunjam (銀簪), nail, etc. Several cautions and side effects of the Blood-Letting therapy are presented. The Blood-Letting therapy could be applied to broad spectrum of symptoms. Body parts being applied were not only several acupoints but also effective points of the body.

Conclusions : This study shows that Donguibogam represents Blood-Letting therapy in clear fashion so as to enhance the convenience and its practicality.

Key words : Donguibogam, Blood-Letting therapy, Hyul, Rak

1. 緒 論

자락요법은 한의학의 침구 치료법 중 하나로 삼릉침 등의 도구로 일정한 신체부위의 모세혈관이 나 피하정맥을 자침하여 소량의 혈액을 방출시켜 양성적 체내 생리반응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

는 방법을 말한다. 한의 임상 치료상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 자락이라고 하면 일반정맥사혈, 세락자락, 피부자락을 포함하고 있다^{1,2)}.

또 자락요법은 사혈요법, 刺血療法이라고도 하며, 자락이란 락맥을 자파하여 출혈시킨다는 의미이며, 락맥에는 손락, 부락, 혈락이 포함 된다³⁾.

자락요법은 역사적 유물을 근거로는 구석기 시대부터 이용되기 시작해서, 문헌적으로는 황제내경, 난경 등에 기재되어 현대 한의 임상에 이르고 있다⁴⁾. 2006년 국내 자락요법 실태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한국의 한의사의 89.5%에서 자락요법을 시술

· 교신저자: 이상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63-290-1563, Fax. 063-290-1557
E-mail: lisr@korea.com

· 본 연구는 2011년 우석대학교 교내 연구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 투고 : 2011/08/22 심사 : 2011/09/02 채택 : 2011/09/09

하고 있으며⁵⁾, 자락요법에 기초한 곡운침법⁶⁾과 금진옥액요법⁷⁾등의 치료법이 응용시술 되고 있다.

관련분야의 선행적인 연구로서 기초의학적분야로는 자락요법에 따른 혈전⁸⁾, 혈청⁹⁾등의 상태변화가 연구되어졌고 임상분야로는 요통^{10,11)}, 중풍^{12,13)}, 통풍¹⁴⁾, 열성질환¹⁵⁾ 등의 실제 질환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문헌적인 연구로는 영추 소문¹⁶⁻¹⁸⁾등의 연구가 있었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의학가 허준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16세기 말까지의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하여 한의학 발전과 보급에 크게 이바지한 원전으로 현재까지도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의학서이다. 또 2009년에는 유네스코가 그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이 차지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에서 나타난 자락요법에 대한 연구를 국내 대표적인 논문 검색 웹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등에서 검색한 결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고찰에서는 동의보감에 나타난 자락요법에 대해 고찰하여, 자락요법을 임상에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에서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II. 本 論

1. 연구방법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에 대한 구절은 한국한의학연구원 web data에서 추출하였고, 우선 자락요법이 자락도구를 사용하여 혈락에서 출혈시키는 요법이므로 한국한의학연구원 Web data에서 ‘血’과 ‘絡’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문장을 추출하고, 범인문화사의 신대역 동의보감에서 원문을 대조하여 출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다시 추출하였다.

그리고 내용상 자락요법에 의한 출혈이 아닌 환자의 단순 증상 등의 출혈을 삭제하고, 직간접적으로 시술자에 의해 출혈되는 것을 포함한 문장을 치료 목적으로서 자락요법을 시술한 문장으로 판단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자락부위의 탐색, 자락도구, 자락요법의 유의사항과 부작용, 적응증, 경혈 및 경외기혈, 자락부위 등을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자락부위의 탐색은 자락부위를 찾는 색과 형태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고, 자락도구는 도구별로 고찰하였으며, 유의사항과 부작용은 자락요법 시술 전의 유의사항과 자락요법시술 후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고, 적응증은 한방질병분류에 의해 내과, 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치과 등으로 나뉘 고찰하였으며, 시술부위는 경혈 및 경외기혈, 시술부위와 병증부위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뉘 고찰하였다. 분류 항목에서 한 구문에 분류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각주로 중복 처리 하였다.

2. 자락부위의 탐색

1) 血絡의 색을 탐색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을 시행하는 부위인 血絡을 탐색하는 방법은 색과 형태를 관찰하여 탐색하는 방법이 기술되고 있다.

색을 보고 탐색하는 것은 外形篇 頭에서 한 노부인의 두통 치험례에서는 손발의 핏줄이 검붉은 것을 관찰하고 침으로 먹물 같은 피를 빼내고 나서 병이 걸린 경맥에 침을 놓아서 치료한 것이 나와 있다¹⁾. 또 雜病篇 霍亂에서 絞腸沙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북쪽지방에서는 푸른 핏줄을 침으로 찌러 기혈을 소통시킨다는 내용²⁾과 雜病篇 救急에서 양팔에 검은 핏줄이 생긴 것을 사침으로 찌러서

(1) 一老婦, 久患頭痛, 因視其手足, 有血絡皆紫黑, 遂用針刺, 出血如墨汁, 後刺受病之經, 得全愈[綱目] -外形篇 頭-

(2) 乾霍亂者, 乃寒濕太甚, 脾被絆而不能動, 氣被鬱而不能行, 所以卒痛而手足厥冷, 俗名絞腸沙者, 蓋言痛之甚也. 北方刺青筋以出氣血, 南方刮胸背手足以行氣血, 俱能散病. 然出氣血, 不如下行氣血之爲愈也.[丹心] -雜病篇 霍亂-

검붉은 피를 배출시켜 치료한다는 내용⁽³⁾이 있다. 또 外形篇 腰에서 腰背痛에 오금 중간에 푸르고 붉은 락맥에 침을 놓아 출혈시키라는 내용도 있다⁽⁴⁾. 즉 정체된 血絡은 핏줄의 색이 검붉고, 푸른 색인 것을 관찰하여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밝히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血絡의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관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雜病篇 痲瘡에 瘡疾이 발작하기 전에 사지를 단단히 묶고 孫絡을 찾아 시술하는 내용이 있고⁽⁵⁾, 雜病篇 霍亂에서 絞腸沙증에 의사의 손에 따뜻한 물을 묻혀 환자의 膝腕를 두드려서 나타난 검붉은 부위를 찾아 시술하는 내용도 있다⁽⁶⁾⁽⁷⁾. 형태가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능동적으로 血絡을 찾아 시술하는 방법이다. 이는 구체적인 임상활용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2) 혈락의 형태를 탐색

형태를 보고 탐색하는 것은 瘡疾에 자락요법을 사용한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데 몸에 小豆, 즉 붉은 팥알 같은 것이 있는지 관찰하여 보고 출혈시키라는 내용이 있다⁽⁸⁾. 또 小兒痲疾을 치료하는데 귀 뒤에 푸른 문양의 실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면 출혈시키라는 내용이 있다⁽⁹⁾. 즉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을 시행할 血絡의 형태는 팥알 같고 실같이 부푼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에서는 血絡의 형태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 자락요법에 사용하는 도구

Table 1. 병증과 刺絡도구, 刺絡部位 및 經穴

병증	刺絡도구	刺絡部位 및 經穴
衄不止	三稜針	氣衝
搭顛腫	草莖	鼻中
目赤腫	草莖	鼻孔
腎	鍼鈞	患部
爛弦風	三稜鍼	眶外
舌腫	三稜	廉泉金津玉液
咽喉急閉	蘆管尖	鼻孔
百節痠疼	三稜鍼	絕骨
卒中風	三稜鍼	十井穴
腫瘡	三稜鍼	患部
攪腸沙	砂鍼	兩臂腕中有筋必致黑色
小兒初生丹毒	細鍼或砂鍼	赤暈周匝
癩病	瓜	萌耳後高骨間必有青紋紛紛如線
丹毒	細鍼	患部
丹毒	蜚鍼	患部
痘疔	銀簪	疔頭

1) 三稜針, 鋒鍼

자락요법의 도구로 삼릉침이 사용된 것은 內景篇 血에서 코피가 멎지 않는 경우에 삼릉침으로 氣衝穴을 찔러 피를 내어 치료하는 내용이 있고⁽¹⁰⁾. 그리고 外形篇 안에는 爛弦風에 눈의 외측 주변을 삼릉침으로 출혈시켰으며⁽¹¹⁾. 外形篇 口舌에서는 혀가 부위 말하기 힘든 경우에 廉泉, 金津, 玉液을 삼릉침으로 출혈시켜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다⁽¹²⁾.

(3) 患痛之人, 兩臂腕中, 有筋必致黑色, 用砂鍼擊刺出紫黑血, 痛即止神效.[十三方] - 雜病篇 救急 -
 (4) 腰背痛, 以鍼決膝腰句畫中青赤絡脈出血, 便差.[得效] - 外形篇 腰部 -
 (5) 瘡之且發也, 陰陽之且移也, 必從四末始也, 陽已傷, 陰從之, 故先其時堅束其處, 審候見之, 在孫絡盛堅而血者, 皆取之.[內經] - 雜病篇 痲瘡 -
 (6) 絞腸沙證, 手足厥冷, 腹痛不可忍者, 以手蘸溫水, 於病者膝腕上拍打, 有紫黑點處, 以鍼刺去惡血. 即愈.[經驗] - 雜病篇 霍亂 -
 (7) 又法, 以手蘸溫水, 於病者膝灣內拍打, 有紫黑點處, 以鍼刺去惡血, 即愈.[丹心] - 雜病篇 救急 -
 (8) 諸瘡而脈不見, 刺十指間出血, 血去必已, 先視身之赤如小豆者, 盡取之. - 雜病篇 痲瘡 -
 (9) 癩病方萌, 耳後高骨間必有青紋, 紛紛如線, 見之急用瓜破, 須令血出, 啼叫尤得氣通, 易效也.[直小] - 雜病篇 小兒 -
 (10) 衄不止, 以三稜針於氣衝出血, 立愈.[東垣] - 內景篇 血 -
 (11) 爛弦風, 取大骨空, 灸九壯, 以口吹火滅. 小骨空. 灸七壯, 亦吹火滅. 又以三稜鍼刺眶外出血, 即愈.[綱目] - 外形篇 眼 -
 (12) 舌腫難言, 取廉泉金津玉液, 各以三稜出血. 又取天突少商然谷風府.[綱目] - 外形篇 口舌 -

또 雜病篇 風에는 전신의 뼈마디가 쭈시고 실지 못하는 바가 없으면 삼릉침으로 絕骨穴을 침차출혈하여 치료하고⁽¹³⁾, 卒中風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人事不省이 된 경우에 삼릉침으로 十井穴을 찔러 惡血을 제거하여 치료하는 내용이 있다⁽¹⁴⁾. 雜病篇 諸瘡에는 腫瘡이 검붉게 되었을 때에 삼릉침으로 악혈을 제거하고 찬물로 씻고 고약을 붙이고 햇볕, 화기, 陽氣등을 멀리하고 검게 부은 것이 다 하지 않았다면 다시 출혈시켜서 검붉은 피가 다 내릴 때까지 치료하라는 내용이 있다⁽¹⁵⁾.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에 사용하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鍼灸篇에서 素問 鍼解篇을 인용한 부분에서 九鍼 중 하나인 鋒針으로 되어있다⁽¹⁶⁾. 鋒針은 길이가 1치 6푼이고 침날이 삼각모양으로 고질병에 사용하는 침으로⁽¹⁷⁾, 열을 내리고 출혈시키는 데 적합하다⁽¹⁸⁾. 또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으로 언급된 삼릉침은 봉침의 발전된 형태로 사혈이나 자락에 많이 사용되었다⁽¹⁹⁾.

Table 1에 보면 동의보감에서 삼릉침은 일반적인 자락요법시술에 질환분류에서 내과, 외과, 피부과, 오관과 등을 막론하고 이용되었으며, 자락요법시술부위에서는 경혈, 경외기혈, 환부주위 등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삼릉침이 자락요법의 기본적인 도구였으며 코피치료에는 氣衝穴, 전신에 뼈마디가 아플 때는 絕骨穴, 卒中風 人事不省에는 十井穴 등의 구체

적인 경혈명과 함께 치료방법이 기술된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에서 삼릉침을 사용한 자락요법은 경락과 경혈을 알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사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2) 細針

세침이 자락요법 도구로 사용된 것은 雜病篇 부인에서 小兒가 갓 태어나서 온몸에 丹毒이 발생하여 붉게 부은 것이 돌아다니다 배로 들어가 腎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데 이것을 赤遊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세침이나 사침을 이용하여 붉은 부위 주변에 악혈을 빼서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고⁽²⁰⁾, 雜病篇 小兒에서 丹毒에 있어 독기가 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창만하면 죽는데 독기가 달리는 곳에 침으로 출혈시키는데, 일설에서는 세침으로 악혈을 빼내라고 되어있다.

동의보감 鍼灸篇에 나온 九鍼 중에서 細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 細針의 정확한 규격과 쓰임은 알 수 없지만 동의보감의 細針이 사용된 다른 기재들을 통해 細針 사용의 용도와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雜病篇 婦人에서 逆産 즉 태아가 발부터 나온 경우와 橫産 즉 태아가 손부터 나온 경우에 세침을 사용해서 태아의 손과 발을 1,2푼 깊이로 찔러서 태아로 움츠리게 해서 태아의 자세를 바로 잡는 치료가 기재되어 있다⁽²¹⁾.

(13) 百節痠疼, 實無所知, 以三稜鍼刺絕骨出血, 立愈.[東垣] - 雜病篇 風 -

(14) 卒中昏倒不省, 牙噤涎潮, 口眼喎斜, 精神恍惚, 倉卒之際, 以手大指掐刻人中即省. 或急令人將病者兩手兩足, 從上而下, 頻頻趕出四肢痰氣即散, 免致攻心即醒. 或急以三稜鍼, 刺手十指甲角十井穴, 將去惡血, 就以氣鍼刺合谷二穴人中一穴, 皆是良法. 如未效, 用通關散吹鼻, 即提起頭頂髮, 候有嚏可治. 如口噤不開, 以破棺散擦之口即開, 多灌香油加麝香一二分, 或用薑汁及攝生飲之類. 若風痰壅結, 諸藥不效, 奪命散一服立愈.[醫鑑] - 雜病篇 風 -

(15) 腫瘡色紫黑, 先以三稜鍼刺去惡血, 冷水洗淨, 乃貼膏藥, 忌日光火氣陽氣. 如有黑腫未盡, 可再出血, 以紫黑血盡爲度.[綱目] - 雜病篇 諸瘡 -

(16) 瀉熱出血發泄痲病宜鋒鍼[內經] - 針灸篇 製九鍼法 -

(17) 長一寸六分, 刃三隅, 以發痲疾.[易老] - 針灸篇 四曰鋒鍼 -

(18) 瀉熱出血發泄痲疾[易老] - 針灸篇 四曰鋒鍼 -

(19) 謂用三稜鍼, 視孫絡出血也.[正傳] - 雜病篇 痲瘡 -

(20) 小兒初生, 遍體發丹毒, 赤腫遊走, 若入腹入腎則必死, 名曰赤遊. 乃胎毒也. 宜以細鍼或砂鍼, 隨赤暈周匝刺出惡血, 最妙. 仍以芭蕉汁蟻蟻汁, 塗之. - 雜病篇 婦人 -

동의보감에서 세침이 언급된 부분은 Table 1에서 보듯이 丹毒에 사용된 경우와 逆産에 사용된 내용 밖에 없으며 모두 세침은 小兒에서 사용되어졌으며 丹毒, 逆産, 橫産등의 救急에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유추해보면 일반적으로 자락요법에는 주로 삼릉침이 사용되었지만 小兒는 오장육부가 아직 취약하고 피부와 뼈가 연약하며 혈과 기가 왕성하지 못하고, 경락이 가는 실과 같은 상태⁽²²⁾이기 때문에 小兒의 연약한 특성을 반영하여 小兒에게는 일반적인 삼릉침을 사용하기 보다는 가는 세침을 사용하여 자락요법을 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水蛭

水蛭이 자락요법 도구로 사용된 것은 雜病篇 小兒에서 小兒 丹毒을 치료하는데 水蛭을 붙여서 악혈을 흡출시키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고⁽²³⁾, 수질을 小兒의 丹毒과 赤白遊疹에 환부에 붙여서 악혈을 흡출시키는 것이 좋다고 내용이 있다⁽²⁴⁾.

蜚鍼法은 동의보감에서 雜病篇 癰疽에서 癰疽鍼法 중 하나로 나와 있으며 주로 癰疽 重症보다는 輕症에 사용하는데⁽²⁵⁾ 癰癤이 생겨서 점차 커질 때 癰癤의 꼭대기를 물로 씻고 붓대롱 하나를 癰癤의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속에 水蛭을 넣고 찬물을

자주 부어 주면서 水蛭이 농혈을 빨아 먹게 하여 癰疽를 치료하는 방법이다⁽²⁶⁾. 동의보감에서 水蛭을 자락요법에 이용하는 것은 삼릉침이나, 세침보다 비침습적이어서 장부나 경락이 미약한 小兒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한의학적으로는 수질의 活血解毒하는 효능을 이용하여 小兒단독의 치료효율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4) 草莖

풀대가 자락요법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外形篇 面에서 한 사람이 頭項 한쪽이 부어서 한 쪽 눈까지 연해져 있는 것을 通聖散으로 땀을 낸 다음에 풀대로 콧속을 자침하여 출혈시켜서 치료한 내용이 있다⁽²⁷⁾. 또 外形篇 안에서 目赤腫瞖에 上星, 百會등에 자침하고 풀대로 콧속을 자출혈 시켜서 피를 여러 되 빼서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다⁽²⁸⁾.

Table 1에서 보듯이 풀대를 사용한 자락요법시술부위는 鼻孔과, 鼻中이다. 동의보감에서는 금속이 아닌 식물을 자락도구로 사용한 경우에서 鼻 부위에 자락요법을 시행했다. 또 다른 식물로 된 자락도구인 蘆管尖에도 鼻中을 자락한 것에도 역시 적용되었다. 이는 콧속이라는 민감하고 부위를 자락하는데 있어서 예리한 금속성 자락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둔한 식물을 재료로 한 도구를

(21) 逆産者, 先露足橫産者先露手坐産者, 先露臂皆用力太早之過也, 若手足先露者用細鍼刺兒手足心, 入一二三四次刺之, 以鹽塗其上輕, 輕送入兒得痛驚轉一縮即, 順生下, 又兒脚先生者謂之踏蓮花生急以鹽塗兒脚心因急搔之併以鹽摩母腹上則自然正生矣 [正傳] - 雜病篇 婦人 -

(22) 爲醫之道大方脈爲難活, 幼爲尤難以其藏府脆嫩, 皮骨軟弱, 血氣未盛, 經絡如絲, 脈息如毫, 易虛易實易冷易熱兼之, 口不能言, 手不能指, 疾痛之莫知, 非觀形察色聽聲切脈, 究其病源詳其陰陽表裏虛實, 而能療之者蓋亦寡矣[得效] - 雜病篇 小兒 -

(23) 蜚鍼, 吸出惡血, 最妙.[諸方] - 雜病篇 小兒 -

(24) 小兒丹毒及赤白遊疹, 用蜚鍼法, 取水蛭吮出惡血, 最妙.[本草] - 雜病篇 小兒 -

(25) 蜚鍼一法, 可施於輕小證候, 若癰疽大毒積在藏府徒竭其血, 於外無益也.[丹心] - 雜病篇 癰疽 -

(26) 癰疽初發漸大, 以濕紙一片搭瘡上其一點, 先乾處, 即是正頂先, 以水洗去人皮膩, 取大筆管一箇安於正頂上却, 用大水蛭一條, 安其中頸, 以冷水灌之蛭, 當吮其正穴膿血皮肉白是毒散無不差如毒大蛭, 小須用三四條, 方見效若吮着正穴, 蛭必死用, 水救活果試奇效, 如血不止, 以藕節上泥塗之[得效] - 雜病篇 癰疽 -

(27) 一人頭項偏腫, 連一目, 若半壺, 其脈洪大. 戴人曰, 內經云, 面腫者風. 此風乘陽明經也, 氣血俱多, 風腫宜汗. 先與通聖散去硝黃, 入薑葱豉同煎服, 微汗. 以草莖刺鼻中出血, 其腫立消.[子和] - 外形篇 面 -

(28) 目赤腫瞖, 羞明隱澁, 取上星百會攢竹絲竹空睛明瞳子膠太陽合谷, 又以草莖刺鼻孔, 出血數升, 即愈.[子和] - 外形篇 眼 -

사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5) 蘆管尖

갈대의 끝은 外形篇 咽喉에서 咽喉急閉증상에 후두위에 血泡가 있으면 침으로 찌르는데, 血泡가 후두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은 것은 환자에게 물을 한 모금 머금게 하고 갈대의 끝으로 콧구멍을 자극시켜 치료한다고 되어있다⁽²⁹⁾. 갈대 끝도 鼻中을 자극한 것으로 보아 풀대를 자락도구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락부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6) 鉞鍼

피침이 자락요법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雜病篇 癰疽에서 癰疽로 천초씨 몇 십 알이나 벌집모양으로 굵아서 고품이 나오면서 통증이 가지지 않을 때는 피침으로 열십자모양으로 찌어 독혈을 고품과 함께 제거하여 치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³⁰⁾, 또 外形篇 口舌에서 한 노인이 舌根이 부어올라서 가득 찼을 때, 피침으로 하루 8, 9차 시술해서 피를 2, 3잔정도 빼내서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다⁽³¹⁾.

鉞鍼은 길이가 4치이고 너비가 2푼 반인데, 침끝이 칼날과 같다⁽³²⁾. 破鍼이라고 하기도 하며, 癰腫을 파하고 농혈을 빼내는데 사용하는 침이다⁽³³⁾. Table 1에 보면 피침이 사용된 병증은 舌腫이나, 癰疽같이 부어오르는 증상이다. 그래서 삼릉침이나 세침 등으로 자락요법을 시행하는 데는 농을 제거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외과적 처지와 자락요법을 겸할 때 피침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을 시술하는데 증상의 양상을 고려하여 자락도구를 선택한 것을 반영하여 인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7) 砂鍼

사침은 雜病篇 救急에서 絞腸沙 救急치료하는데 환자의 양쪽 臂腕 가운데에 검은 색의 靑筋을 사침으로 찔러서 피를 빼서 치료한다는 기술이 있고⁽³⁴⁾, 雜病篇 婦人에서 小兒 初生 救急 十八條에 태아가 태어나서 丹毒으로 위독할 때 사침으로 악혈을 배출시키라고 되어 있다⁽³⁵⁾.

Table 1에서 볼 때 동의보감에서 砂鍼으로 자락요법을 시행한 경우는 絞腸沙나, 小兒丹毒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救急한 경우에 사용한 것을 기재하고 있다. 사침은 도자기 파편으로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의사의 시술도구인 삼릉침이나 세침보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술도구였을 거라 생각된다.

8) 銀簪

동의보감에서 은잠으로 자락요법을 시술한 것은 雜病篇 小兒에서 豆疔이 발생했을 때 豆疔의 끝을 은비녀로 자침하여 부모로 악혈을 빨아 제거하거나 손톱을 비단으로 싸서 눌러 독기를 제거하여 치료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³⁶⁾.

(29) 火鬱則發之. 砭刺出血, 卽汗之之義也, 血出多則愈. 有鉞瘡者, 薑汁調熱水時時呷之. 凡關上血泡, 最宜鉞, 關下不見者, 令病人含水一口, 用蘆管尖刺鼻孔出血, 妙.[入門] -外形篇 咽喉-

(30) 癰疽如椒眼數十粒, 或如蜂窠蓮房而膿出, 痛不除, 宜以鉞鍼橫直裂之則, 毒血挾膿出而愈.[綱目] -雜病篇 癰疽-

(31) 一老人舌根腫起, 漸至滿口, 勢甚凶. 戴人曰, 血實者宜決之. 以鉞鍼日砭八九次, 出血約二三盞, 漸覺腫消痛減. 夫舌者, 心之外候, 心主血, 故血出而愈.[子和] -外形篇 口舌-

(32) 長四寸廣二分半, 末如劍鋒, 以取大膿.[易老]-鍼灸篇 五曰鉞鍼-

(33) 一名破鍼, 用以破癰腫出膿血.[易老]-鍼灸篇 五曰鉞鍼-

(34) 患痛之人, 兩臂腕中, 有筋必致黑色, 用砂鍼擊刺出紫黑血, 痛卽止神效.[十三方] -雜病篇 救急-

(35) 小兒初生, 遍體發丹毒, 赤腫遊走, 若入腹入腎則必死, 名曰赤遊. 乃胎毒也. 宜以細鍼或砂鍼, 隨赤暈周圍刺出惡血, 最妙. 仍以芭蕉汁蟻蟻汁, 塗之. -雜病篇 婦人-

(36) 起脹時, 有痘長大而紫黑, 名曰痘疔, 把住痘瘡令不起, 失治則死, 急用保元湯, 方見下 加鼠粘子荊芥穗芩連並酒炒, 外用銀簪挑

은잠을 사용하는 것은 소아 두정으로 응급상황 일 때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장식이었던 은비녀로 자락요법을 시술 하여 구급하려 한 것이다.

9) 指

손가락이 자락요법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雜病篇 小兒에서 태아가 태어나서 곧 죽는 경우에 태아의 입안 목젓과 잇몸에 물집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터트려 피가 나오게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³⁷⁾.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소아가 태어나서 곧 죽을 것 같은 경우인 응급상황일때 손가락을 자락도구로 사용하여 구급하려한 것이다.

4. 자락요법의 유의사항 및 부작용

Table 2. 六經의 血氣多少 및 出血, 出氣

六經	血氣多少	出血可能	出氣可能
陽明經	多血多氣	O	O
太陽經	多血少氣	O	X
少陽經	多氣少血	X	O
太陰經	多氣少血	X	O
厥陰經	多血少氣	O	X
少陰經	多氣少血	X	O

1) 자락요법의 시술 전 유의사항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의 시술 전 유의사항으로는 內景篇 血에 血이 적거나 血이 허한 사람은 침을 놓아 출혈을 과다하게 시키는 것은 금기라고 되어있고⁽³⁸⁾, 鍼灸篇 十二經血氣多少에서 침을 놓을 때에 陽明經은 血과 氣를 다 빼고, 太陽經은 血은 빼고 氣는 빼지 말고, 少陽經은 氣는 빼고 血은 빼서는 안 되며, 太陰經은 氣는 빼고 血은 빼서는 안 되며, 厥陰經은 血은 빼고 氣는 빼지 못하게 하며, 少陰經은 氣는 빼고 血은 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³⁹⁾. 外形篇 眼에는 눈 주위의 경락에서 출혈시키려면 足太陽經이나 足陽明經에서 출혈시키고, 足少陽經에는 출혈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⁴⁰⁾.

자락요법을 시술하기 전에 유의사항은 血少한 경락이나, 血虛한 사람에게는 자락요법을 시술할 수 없다는 것이다. 鍼灸篇 十二經氣血多少에 보면 6經의 氣血多少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태양경에는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며, 소양경에는 항상 氣가 많고 血이 적으며 양명경에는 항상 血도 많고 氣도 많으며, 궤음경에는 항상 血이 많고 氣가 적으며, 소음경에는 항상 氣가 많고 血이 적으며, 태음경에도 항상 氣가 많고 血이 적은데 이것이 인체의 정상적인 규칙으로 나와 있다⁽⁴¹⁾. 그래서 血이 많은 경락에서는 출혈이 가능하고 血이 적은 경락에서는 출혈이 불가능하다.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

破疔頭, 令父母吮去惡血, 或綿裹指甲, 掐去惡血. 蓋痘破而毒氣發泄故也. 仍用雄黃末一錢, 調臘脂汁令濃, 點疔痘上, 立見紅活. 雄黃拔毒, 臘脂活血也.[醫鑑] -雜病篇 小兒-

(37) 小兒初生, 有即死者, 急看兒口中懸雍前上, 有泡如石榴子, 以指摘破出血, 以帛拭去, 髮灰摻之. 若惡血入口, 中即死.[入門] -雜病篇 婦人-

(38) 內經曰, 鍼走血, 血病無多食鹹. 又曰, 久視傷血. 凡血少血虛之人, 針刺出血過多, 皆爲禁忌. -內景篇 血-

(39) 針灸 十二經血氣多少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多氣少血, 陽明常多血多氣, 厥陰常多血少氣, 少陰常多氣少血, 太陰常多氣少血, 此天之常數也. 故曰, 刺陽明出血氣, 刺太陽出血惡氣, 刺少陽出氣惡血, 刺太陰出氣惡血, 刺厥陰出血惡氣, 刺少陰出氣惡血也.[靈樞] -針灸篇 十二經血氣多少-

(40) 目之內眥, 太陽經之所起, 血多氣少. 目之銳眥, 少陽經也, 血少氣多. 目之上綱, 太陽經也, 亦血多氣少. 目之下綱, 陽明經也, 血氣俱多. 此三經俱會于目, 惟足厥陰經連於目系而已. 故血太過者, 太陽陽明之實也. 血不及者, 厥陰之虛也故出血者宜太陽陽明, 蓋此二經血多故也. 少陽一經不宜出血, 血少故也刺太陽陽明. 出血則目愈明刺少陽出血, 則目愈昏矣.[子和] -外形篇 眼-

(41) 針灸 十二經血氣多少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多氣少血, 陽明常多血多氣, 厥陰常多血少氣, 少陰常多氣少血, 太陰常多氣少血, 此天之常數也. 故曰, 刺陽明出血氣, 刺太陽出血惡氣, 刺少陽出氣惡血, 刺太陰出氣惡血, 刺厥陰出血惡氣, 刺少陰出氣惡血也.[靈樞] -針灸篇 十二經血氣多少-

은 이 원칙에 따라 자락의 가능유무를 정하고 있다. Table 2에서 보면 출혈이 가능한 경락은 陽明經, 太陽經, 厥陰經이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이 자락요법의 원칙은 外形篇 眼에서 눈 주위 경락에도 적용되는데, 눈 주위의 경락에서 多血한 足太陽經이나 足陽明經에서 출혈시키는 것이 가능해도 少血한 足少陽經에는 출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血少한 경락에 출혈이 불가하는 원칙은 사람에도 적용되는데 인체가 血少하거나 血虛한 사람은 출혈시켜서는 안 되는 원칙도 이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Table 3. 자락요법 부작용과 자락부위 및 원인

부작용	자락부위	부작용원인
死	跗上中大脈, 陰中大脈, 臂太陰脈, 舌下兩傍大脈	出血過多
瘡	舌下中脈	出血過多
舌難以言	足少陰脈	出血過多
眼病	頭	出血過多
腫鼠蟻	氣衝中脈	出血不足

2) 자락요법 시술 후의 부작용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의 시술 후 부작용으로는 鍼灸篇 失鍼致傷에 발등의 큰 맥을 찔러 피가 그치지 않으면 죽고⁽⁴²⁾, 陰部の 큰 맥을 찔러 피가 그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으며⁽⁴³⁾, 팔의 太陰脈을 찔러 피가 과다하게 나오면 죽는다고 되어 있다⁽⁴⁴⁾. 또 혀 밑 가운데 맥을 자침한 것이 지나쳐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병어리가 되고⁽⁴⁵⁾, 足少陰脈을 찔러 너무 허하게 출혈되면 혀가 말하기 어렵게 되며⁽⁴⁶⁾, 氣衝을 자침하여 피가 나오지 않으면 서혜부가 붓는다고 되어 있다⁽⁴⁷⁾. 外形篇 안에서는 頭部를 자침하여 출혈이 과다하면 眼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⁴⁸⁾, 또 外形篇 口舌에는 혀의 가운데 맥을 자침하여 피가 그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다⁽⁴⁹⁾.

Table 3에서 보면 동의보감에 나타난 자락요법의 부작용은 인체의 大脈들을 잘못 자침했을 경우 출혈이 과다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기타 혀 아래 가운데 맥이나 원래는 자락요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少血한 경락인 少陰經을 잘못 자침하여 출혈이 과다하면 언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頭部를 잘못 자침하여 출혈이 과다하면 眼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작용들은 출혈이 과다했을 경우이고, 氣衝穴은 잘못 자침하여 출혈량이 부족했을 경우 오히려 서혜부가 붓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의 출혈량은 과다하거나, 과소해서는 안 되고 적당량을 자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5. 病症에 따른 刺絡療法

(42) 刺跗上中大脈血出不止死 -針灸篇 失鍼致傷-

(43) 刺陰中大脈血出不止死 -針灸篇 失鍼致傷-

(44) 刺臂太陰脈出血多立死 -針灸篇 失鍼致傷-

(45) 刺舌下中脈大過血出不止爲瘡 -針灸篇 失鍼致傷-

(46) 刺足少陰脈重虛出血爲舌難以言 -針灸篇 失鍼致傷-

(47) 刺其氣衝中脈血不出爲腫鼠蟻 -針灸篇 失鍼致傷-

(48) 眼病所因 生食五辛 按熱飲食 刺頭出血多 極目遠視 夜讀細書 久處烟火 博奕不休 夜間讀書 飲酒不已 熱浪麪食 抄寫多年 雕鏤細作 泣淚過多 房室不節 數向日月輪看 月下讀書 夜視星月 極目瞻視山川草木皆喪明之由也 又有馳騁吹獵 冒涉風霜 迎風逐獸日夜不息皆傷目之由也[千金]

(49) 舌腫如豬胞, 以鍼刺舌下兩傍大脈, 血出卽消. 切勿刺中央脈, 血不止則死. 若誤刺, 以銅筋火燒烙之, 或醋調百草霜塗之, 須臾自消, 此患, 人多不識, 失治則死.[得效] -外形篇 口舌-

1) 내과 질환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내과질환은 中風, 傷寒, 溫病, 瘧疾, 不思食, 頭痛, 霍亂, 搭顛腫 등이 있다.

中風은 雜病篇 風에 기재되어 있는데, 卒中風의 救急 중에서 특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人事不省되고 이를 악물고, 침을 흘리며, 입과 눈이 비틀어지고 정신이 황홀하여 위급할 때에 삼릉침으로 十井穴을 찔러 악혈을 제거하는 자락요법의 기술을 기재하고 있다⁽⁵⁰⁾.

상한에 대한 자락요법은 雜病篇 寒에 기재되어 있는데, 傷寒의 鍼灸法에서 傷寒 중 특히 크게 열이 나서 멈추지 않는 경우에 陷谷穴을 자침하여 출혈시키고, 열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八關穴을 크게 자침하여 출혈시키는 자락요법을 기재하고 있다⁽⁵¹⁾.

溫病은 雜病篇 瘟疫에 기재되어 있는데, 瘟疫 중에서 大頭瘟에 대한 치법에 자락요법을 제시하고 있다. 大頭瘟은 頭痛이 심하고 머리가 몹시 붓는 유행성 전염병이다⁽⁵²⁾. 大頭瘟이 3,4일이 지나도 낫지 않고, 머리와 얼굴이 몹시 붓고, 붉어진 경우에 침으로 출혈시켜 독기를 빼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⁵³⁾, 또 大頭瘟을 치료하는 普濟消毒飲子를 설명하면서, 복용법과 함께, 몹시 부었을 경우에 자락요법을 시행하여 피를 빼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⁵⁴⁾.

瘧疾에 자락요법을 사용한 예는 雜病篇 瘧瘧에 나오는데, 瘧疾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사지 말단을 단단히 묶어서 孫絡이 발견되면 자락요법을 시행하는 내용⁽⁵⁵⁾⁽⁵⁶⁾과, 瘧疾에 脈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먼저 몸에 붉은 小豆같은 것이 있으면 출혈시키고, 열 손가락 사이를 출혈시키는 자락요법을 기재하고 있다⁽⁵⁷⁾.

不思食은 雜病篇 內傷에 기재되어 있는데 여러 內傷을 치료하는 鍼灸法에 대한 기재 중에서 전혀 음식생각이 없는 경우에 然谷穴을 자락하여 출혈시키면 배가 즉시 배가 고파진다는 내용이 있다⁽⁵⁸⁾.

頭痛에 대한 자락요법은 外形篇 頭에 기재되어 있다. 頭痛중에서 편측으로 오는 偏頭痛이 오래되어서 눈이 작아지고, 대변이 비삼한 경우에 자락요법을 시행하는 내용이 있고⁽⁵⁹⁾, 그리고 鍼灸法에 醫學綱目的 임상례를 인용하여 한 노부인이 頭痛이 오래된 것을 손발 血絡이 紫黑한 곳에 자락요법을 시술하여 치료한 것을 기재하고 있다⁽⁶⁰⁾.

(50) 卒中昏倒不省, 牙噤涎潮, 口眼喎斜, 精神恍惚, 倉卒之際, 以手大指指刻人中即省. 或急令人將病者兩手兩足, 從上而下, 頻頻趕出四肢痰氣即散, 免致攻心即醒. 或急以三稜鍼, 刺手十指甲角十井穴, 將去惡血, 就以氣鍼刺合谷二穴人中一穴, 皆是良法. 如未效, 用通關散吹鼻, 即提起頭頂髮, 候有嚏可治. 如口噤不開, 以破棺散擦之口即開, 多灌香油加麝香一二分, 或用薑汁及攝生飲之類. 若風痰壅結, 諸藥不效, 奪命散一服立愈. [醫鑑] - 雜病篇 風-

(51) 傷寒大熱不止, 取曲池瀉絕骨補陷谷出血八關大刺十指間出血. [易老] - 雜病篇 寒-

(52) 大頭病者頭痛腫大如斗是也大率多是天行時疫病也 [綱目] - 雜病篇 瘟疫-

(53) 經三四日不解者, 宜荊防敗毒散, 至七八日大小便通利, 頭面腫起高赤者, 宜托裏消毒散(方見癰疽)兼, 鍼砭出血, 泄其毒氣. 十日外, 不治自愈. 若五日已前, 精神昏亂, 咽喉閉塞, 語聲不出, 頭面大腫, 食不知味者, 必死. [精義] - 雜病篇 瘟疫-

(54) 普濟消毒飲子 治天行大頭瘟. 黃芩黃連並酒炒各五錢, 人參三錢陳皮桔梗玄參柴胡甘草各二錢, 鼠粘子馬勃板藍根(無即用青黛)連翹各一錢, 升麻白僵蠶各五分. 右爲末, 取一半, 白湯調和, 時時呷之, 留一半, 蜜丸彈子大, 每一丸, 細嚼, 熟水送下. 或加防風薄荷川芎當歸剉取一兩, 水煎, 分二三次服之, 腫甚宜砭刺出血. [東垣] - 雜病篇 瘟疫-

(55) 瘧之且發也, 陰陽之且移也, 必從四末始也, 陽已傷, 陰從之, 故先其時堅束其處, 審候見之, 在孫絡盛堅而血者, 皆取之 [內經] - 雜病篇 瘧瘧-

(56) 謂用三稜鍼, 視孫絡出血也. [正傳] - 雜病篇 瘧瘧-

(57) 諸瘧而脈不見, 刺十指間出血, 血去必已, 先視身之赤如小豆者, 盡取之. - 雜病篇 瘧瘧-

(58) 全不思食, 取然谷出血, 立飢. - 雜病篇 內傷-

(59) 頭風之甚者, 久則, 目昏偏頭痛者屬少陽相火久則, 目束小大便秘澀, 皆宜出血而大下之. [子和] - 外形篇 頭-

(60) 一老婦, 久患頭痛, 因視其手足, 有血絡皆紫黑, 遂用針刺, 出血如墨汁, 後刺受病之經, 得全愈 [綱目] - 外形篇 頭-

霍亂에 대한 자락요법은 雜病篇 霍亂과 雜病篇 救急 두 편에 기재되어 있다. 雜病篇 霍亂에서는 乾霍亂일 경우에는 委中穴과 十指頭에서 출혈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되어있고⁽⁶¹⁾, 絞腸沙로 수족이 싸늘하고 복통이 참을 수 없으면 膝腕部를 두드려서 나타난 紫黑處를 자락하여 치료한다고 되어있다⁽⁶²⁾. 그리고 絞腸沙증에는 복쪽지방 의사들은 靑筋에 자침해서 출혈시켜 치료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또 乾霍亂 치법에서는 乾霍亂으로 토하지도 설사하지도 못하고 煩燥症이 나고 숨이 차면서 배가 불러오는 증상에는 委中에 출혈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⁶³⁾. 雜病篇 救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絞腸沙를 陰症과 陽症으로 나뉘 陽症에 복통과 함께 수족이 따뜻한 경우 열손가락등족 손톱 반푼 處를 자침해서 출혈시키면 편안해진다는 내용이 있고⁽⁶⁴⁾, 다른 방법으로 오금을 두드려서 나타난 검붉은 곳을 침으로 출혈시키거나⁽⁶⁵⁾, 양쪽 臂腕中에 靑筋이 黑色으로 변한 곳에 자침하여 검붉은 피를 빼주면 통증이 즉시 멈춘다는 내용도 있다⁽⁶⁶⁾.

搭顛腫은 外形篇 面에서 한 사람이 搭顛腫이 발병하여, 頭項이 偏側으로 붓는데 눈부위까지 연해서 부어서 그 모양이 쪼갠 박모양 같이 되었고, 脈은 洪大했을 때, 風邪가 陽明經에 침범한 것으로

진단하고, 풀대로 콧속을 찔러주어 출혈시켜서 부은 것을 내려주었다는 기재가 있다⁽⁶⁷⁾.

2) 외과질환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외과질환은 疔, 濕癬, 廉瘡, 凍瘡, 杖傷, 狂犬咬人등이 있다.

疔은 雜病篇 癰疽에서 疔瘡이 발병하여 한 줄기 붉은 실선 같은 것이 直上으로 倉卒之間에 올라가는데, 급히 침으로 붉은 선이 잇는 곳에 자침하여 독혈을 빼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⁶⁸⁾, 정이 양 다리에 생기면 붉은 줄이 배꼽까지 이르고 정이 양 손에 생기면 붉은 줄이 心에까지 이르고, 얼굴에 생기면 붉은 줄이 목까지 이르는데, 이는 다 난치이지만 급하게 침으로 붉은 선에서 출혈시켜 독기를 빼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⁶⁹⁾. 또 疔瘡이 발생했을 때 고약을 붙이기전에 침으로 정창의 끝을 자침하여 출혈시키면 차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⁷⁰⁾.

濕癬은 雜病篇 諸瘡에서 한 여자가 양측 사타구니 사이에 濕癬이 생겨서 무릎까지 이르렀는데, 가렵고 아프면서 黃水가 흐르는 증상을 濕毒이 血脈에 스민 것으로 진단하여 침으로 가려울 때마다 100여 곳을 자침하여 출혈시키고 소금 끓인 물로

(61) 乾霍亂, 刺委中穴名出血, 或十指頭諸經非穴, 出血, 皆是良法.[正傳] -雜病篇 霍亂-

(62) 絞腸沙證, 手足厥冷, 腹痛不可忍者, 以手蘸溫水, 於病者膝腕上拍打, 有紫黑點處, 以鍼刺去惡血, 卽愈.[經驗] -雜病篇 霍亂-

(63) 乾霍亂者, 氣痞於中, 吐利不得, 所傷之物壅閉正氣, 關格陰陽, 煩躁喘脹者, 必死, 急用吐法, 鍼委中穴名出血, 兼服治中湯. 方見寒門 或藿香正氣散, 必效.[入門] -雜病篇 霍亂-

(64) 有陰陽二證, 陰沙腹痛而手足冷, 看其身上有小紅點, 以香油燈點火, 燒於紅點上, 令其煖爆, 或服葱豉湯, 汗出卽愈. 陽沙腹痛而手足煖, 以鍼刺其十指背, 近爪甲半分許, 血出卽安. 先自兩臂按摩, 下其惡血, 令聚指頭, 血出爲好.[入門] -雜病篇 救急-

(65) 又法, 以手蘸溫水, 於病者膝灣內拍打, 有紫黑點處, 以鍼刺去惡血, 卽愈.[丹心] -雜病篇 救急

(66) 患痛之人, 兩臂腕中, 有筋必致黑色, 用砂鍼擊刺出紫黑血, 痛卽止神效.[十三方] -雜病篇 救急-

(67) 一人頭項偏腫, 連一日, 若半壺, 其脈洪大. 戴人曰, 內經云, 面腫者風. 此風乘陽明經也, 氣血俱多, 風腫宜汗. 先與通聖散去硝黃, 入薑葱豉同煎服, 微汗. 以草莖刺鼻中出血, 其腫立消.[子和] -外形篇 面-

(68) 疔瘡, 或有一條如紅線, 直上倉卒之際, 急用鍼於紅線所至處, 刺出毒血, 然後以蟾酥乳香等膏, 於疔瘡內塗之, 鍼時以病者知痛出血爲好, 否則紅線入腹, 必致危殆.[綱目] -雜病篇 癰疽-

(69) 疔生兩足, 多有紅絲至臍, 疔生兩手, 多有紅絲至心, 疔生面部, 多有紅絲入喉者, 俱難治, 急鍼其絲出血, 以泄其毒, 方可保生.[入門] -雜病篇 癰疽

(70) 廻瘡蟾酥錠子 治疔瘡天南星款冬花巴豆肉黃丹砒礬各一錢獨活五分斑貓七箇右細末用新蟾酥和勻如黍米大作錠子先以針刺疔頭有血出下錠子以膏藥貼之膿出自差[精義] -雜病篇 癰疽-

씻어주는 것을 네 차례 하여 치료시켰다는 기재가 있다⁽⁷¹⁾.

廉瘡는 雜病篇 諸瘡에서 廉瘡의 색이 검붉게 되었으면 먼저 삼릉침으로 찔러 악혈을 제거해야 하는데 만약 검게 된 것이 부어 내리지 않을 때에는 검붉게 된 피가 다할 정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⁷²⁾.

凍瘡는 雜病篇 諸瘡에서 凍瘡에 걸려서 발뒤꿈치가 얼어서 무너지고 터지면 먼저 川椒물로 씻고 찌른 살을 긁어낸 후에 침으로 찔러 피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⁷³⁾.

杖傷은 雜病篇 諸瘡에서 맞아서 血瘀가 발생하여 부은 데에는 먼저 침으로 찔러 악혈을 빼낸 다음에 고약을 붙이라고 되어있다⁽⁷⁴⁾.

狂犬咬人은 雜病篇 諸瘡에서 미친개에게 물리면 먼저 침을 놓아 악혈을 제거하고 뜸을 떼야 한다고 되어있다⁽⁷⁵⁾.

3) 小兒과질환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小兒과 질환은 小兒初生에서 卽死, 馬牙, 赤遊가 있고, 癩病, 丹毒, 豆疔이 있다.

小兒가 갓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에 대한 救急법은 총 18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락요법을 사용하여 救急한 경우는 2종류로 雜病篇 婦人에 기재되어 있다. 小兒가 갓 태어나서 입을 다물고 젖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를 馬牙라고 하는데, 小兒의 잇몸에 좁쌀같은 작은 물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침으로 터뜨려 출혈 시키라고 되어있으며⁽⁷⁶⁾, 갓 태어나서 온몸에 丹毒이 발생하여 붉게 부은 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赤遊라고 하는데 침으로 붉은 무리 주위를 자락하여 악혈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다⁽⁷⁷⁾.

小兒癩病은 雜病篇 小兒에서 癩病이 막 시작될 때에 귀 뒤의 靑筋을 손톱으로 터뜨리라고 되어 있다⁽⁷⁸⁾.

小兒 丹毒은 雜病篇 小兒에 丹毒에서 丹毒의 독기가 안에 들어가 배가 부르면 죽는데 독기가 달리는 곳을 길을 따라 자침하여 출혈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며⁽⁷⁹⁾. 蜚鍼으로 악혈을 흡출하는 것이 좋다고도 되어있다⁽⁸⁰⁾.

小兒 豆疔은 雜病篇 小兒에 발진에 물집이 잡힐 때 長大하면서 검붉은 것을 豆疔이라고 하는데 豆疔 끝을 은비너로 터뜨리고 부모가 악혈을 빨아서 제거하거나, 솜으로 손톱을 싸서 악혈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⁸¹⁾.

4) 안이비인후과 치과 질환

(71) 一女子兩股間濕癬下至膝痒痛流黃水百藥不效戴人以鍼當痒時刺百餘處血出盡煎鹽湯洗之四次方除蓋濕淫於血不可不鍼也[子和] - 雜病篇 諸瘡-

(72) 廉瘡色紫黑, 先以三稜鍼刺去惡血, 冷水洗淨, 乃貼膏藥, 忌日光火氣陽氣. 如有黑腫未盡, 可再出血, 以紫黑血盡爲度.[綱目] - 雜病篇 諸瘡-

(73) 足跟凍瘡潰破, 以川椒煎湯洗, 刮去腐肉鍼刺出血, 馬勃末調牛骨髓付之.[綱目] - 雜病篇 諸瘡-

(74) 痛甚者, 內服乳香定痛散, (方見上)隨以熱酒盡量, 而飲外貼黃蠟膏方見諸瘡, 有血瘀壅腫先刺出惡, 血然後乃貼膏藥.[入門] - 雜病篇 諸瘡-

(75) 狂犬咬人, 當先鍼刺, 去惡血, 仍灸瘡中十壯, 自後日灸一壯至百日乃止忌飲酒.[資生] - 雜病篇 諸瘡-

(76) 小兒初生, 忽患撮口不飲乳, 名曰馬牙, 不治則, 百無一生, 便看兒齒齦上有小泡子如粟米狀, 急以鍼挑出血, 用墨磨薄荷汁斷母髮, 少許裹手指蘸墨, 遍口內擦之勿飲乳, 一時許卽差.[入門] - 雜病篇 婦人-

(77) 小兒初生, 遍體發丹毒, 赤腫遊走, 若入腹入腎則必死, 名曰赤遊, 乃胎毒也. 宜以細鍼或砂鍼, 隨赤暈周匝刺出惡血, 最妙. 仍以芭蕉汁鱉蟻汁, 塗之. - 雜病篇 婦人-

(78) 癩病方萌, 耳後高骨間必有靑紋, 紛紛如線, 見之急用瓜破, 須令血出, 啼叫尤得氣通, 易效也.[直小] - 雜病篇 小兒-

(79) 毒氣入裏腹脹則, 死毒氣所走之處截, 經刺之出血, 一云, 急以細鍼刺出惡血, 卽消.[入門] - 雜病篇 小兒-

(80) 蜚鍼, 吸出惡血, 最妙[諸方] - 雜病篇 小兒-

(81) 起脹時, 有痘長大而紫黑, 名曰痘疔, 把住痘瘡令不起, 失治則死, 急用保元湯, 方見下 加鼠粘子荊芥穗芩連並酒炒, 外用銀簪挑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안질환은 被物撞打, 目赤腫腎, 暴赤腫痛, 障翳, 努肉攀睛, 爛弦風, 雀目, 暴盲不見, 眼腫痛이 있다.

被物撞打는 外形篇 眼에서 눈을 맞아서 눈알이 튀어나왔지만 눈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곧 밀어 넣고 瘀血이 있는 경우에는 자침하여 어혈을 빼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⁸²⁾. 目赤腫腎, 暴赤腫痛, 障翳, 努肉攀睛, 爛弦風, 雀目, 暴盲不見, 眼腫痛은 모두 外形篇 眼의 鍼灸法에 기재되어 있다. 目赤腫腎는 눈이 붉게되어 부으면서 腎膜이 생기고, 눈이 부시고, 갈갈한 증상이 있으면 풀대로 콧구멍을 찔러 피를 여러되 내준다고 되어 있다⁽⁸³⁾. 暴赤腫痛은 神庭, 上星, 顛會, 前頂, 百會에 침을 놓아 출혈시킨다고 되어있다⁽⁸⁴⁾. 障翳는 睛明, 四白, 太陽, 百會, 商陽, 厲兌, 光明穴에 각각 침을 놓아 출혈시키라고 되어 있으며⁽⁸⁵⁾, 努肉攀睛에는 睛明, 風池, 期門, 太陽을 취하여 피를 낸다고 되어 있다⁽⁸⁶⁾. 또 爛弦風에는 삼릉침으로 눈시울의 외자 죽을 찔러 피를 내라고 되어 있고⁽⁸⁷⁾, 雀目에는 神庭, 上星, 前頂, 百

會, 睛明을 취하여 침을 놓아 피를 내라고 되어있으며⁽⁸⁸⁾, 暴盲不見에는 콧구멍을 찔러 크게 출혈시키면 좋아진다고 하였다⁽⁸⁹⁾. 또 眼腫痛에는 八關에서 출혈시킨다는 내용이 있다⁽⁹⁰⁾.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비질환은 衄이 있다. 內景篇 血에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에 삼릉침으로 氣衝혈을 자침하여 출혈시키면 낫는다는 내용이 있다⁽⁹¹⁾.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인후질환은 咽喉急閉, 牙關不開가 있다. 外形篇 咽喉에 咽喉急閉에는 침을 써서 출혈시키라고 되어있으며⁽⁹²⁾⁽⁹³⁾⁽⁹⁴⁾, 牙關不開에는 陽靈穴을 취하여 출혈시키면 낫는다고 되어있다⁽⁹⁷⁾.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口舌질환은 重舌, 口瘡, 舌腫이 있으며 모두 外形篇 口舌에 기재되어 있다. 重舌은 혀 밑에 붙어 조그마한 혀가 거둑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침으로 악혈을 빼주면 낫는다고 되어 있다⁽⁹⁸⁾. 口瘡에는 金津 玉液을 취하여 각각 출혈시킨다고 되어있다⁽⁹⁹⁾. 그리고 舌腫에

破疔頭, 令父母吮去惡血, 或綿裹指甲, 掐去惡血. 蓋痘破而毒氣發泄故也. 仍用雄黃末一錢, 調膿脂汁令濃, 點疔痘上, 立見紅活. 雄黃拔毒, 膿脂活血也.[醫鑑] -雜病篇 小兒-

- (82) 眼被物撞打着, 睛出眼帶未斷, 卽推入臉中, 勿驚觸, 於四畔以生地黄細搗, 厚付之, 兼服生地黄散. 若有瘀血, 以鍼刺出, 且用點藥. 如眼帶斷睛損, 卽不可治.[類聚] -外形篇 眼-
- (83) 目赤腫腎, 羞明隱澁, 取上星百會攢竹絲竹空睛明瞳子膠太陽合谷, 又以草莖刺鼻孔, 出血數升, 卽愈.[子和] -外形篇 眼-
- (84) 眼暴赤腫痛, 取神庭上星顛會前頂百會, 出血卽愈. 又取光明地五會[綱目] -外形篇 眼-
- (85) 諸障腎, 取睛明四白太陽百會商陽厲兌光明, 各出血. 合谷三里命門肝俞光明, 各灸之.[綱目] -外形篇 眼-
- (86) 努肉攀睛, 取睛明風池期門太陽, 出血.[綱目] -外形篇 眼-
- (87) 爛弦風, 取大骨空, 灸九壯, 以口吹火滅. 小骨空. 灸七壯, 亦吹火滅. 又以三稜鍼刺眶外出血, 卽愈.[綱目] -外形篇 眼-
- (88) 雀目, 取神庭上星前頂百會睛明, 出血卽愈. 又取肝俞照海[綱目] -外形篇 眼-
- (89) 暴盲不見物, 鍼攢竹, 及頂前五穴. 又刺鼻中, 大出血, 立明.[子和] -外形篇 眼-
- (90) 眼腫痛, 睛欲出, 須八關大刺, 手十指間出血, 卽愈.[易老] -外形篇 眼-
- (91) 衄不止, 以三稜針於氣衝出血, 立愈.[東垣] -內景篇 血-
- (92) 咽喉之疾, 皆屬火熱, 雖有數種之名輕重之異, 乃火之微, 甚故也微, 而輕者, 可以緩治, 甚而急者, 惟用砭刺出血, 最爲上策.[正傳] -外形篇 咽喉-
- (93) 咽喉急閉, 皆屬相火, 惟砭刺出血最爲上策.[正傳] -外形篇 咽喉-
- (94) 凡喉閉急證, 速用鍼刺出血, 并豁吐痰涎爲要, 若遲緩不救則死.[回春] -外形篇 咽喉-
- (95) 火鬱則發之. 砭刺出血, 卽汗之之義也, 血出多則愈. 有鍼瘡者, 薑汁調熟水時時呷之. 凡關上血泡, 最宜鍼, 關下不見者, 令病人含水一口, 用蘆管尖刺鼻孔出血, 妙.[入門] -外形篇 咽喉-
- (96) 一婦人患喉生蛾, 不肯鍼. 范九思云, 我有一藥, 須新筆點之. 乃藏鍼在筆頭內, 刺血出, 卽愈.[入門] -外形篇 咽喉-
- (97) 牙關不開, 取陽靈穴出血, 卽愈.[得效] -外形篇 咽喉-
- (98) 重舌 附舌根而重生小舌, 謂之重舌. 鍼刺去惡血卽愈.[入門] -外形篇 口舌-
- (99) 口瘡, 取承漿合谷人中長強. 又取金津玉液, 各出血.[綱目] -外形篇 口舌-

혀가 부어 말하기 힘든 경우에는 廉泉, 金津, 玉液을 취하여 각각 삼릉침으로 출혈시킨다고 되어 있고⁽¹⁰⁰⁾, 부은 것이 심하면 舌尖, 舌上, 혹은 舌傍을 출혈시키고⁽¹⁰¹⁾, 돼지 오줌보처럼 부었을 경우에는 혀 밑 양쪽 큰 혈관을 자침하여 출혈시키면 소실된다는 내용이 있다⁽¹⁰²⁾. 또 舌腫에서 舌根이 부어서 입안에 가득차서 위험한 경우에 鈹鍼으로 하루 8,9차, 피를 2,3잔 빼내어 치료한 내용도 있다⁽¹⁰³⁾.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치과질환은 落齒가 있다. 外形篇 牙齒에 치아가 빠진 곳을 침으로 찔러 피를 내고 雄鷄糞과 雌鷄糞을 뿌려주어 치료한다고 되어있다⁽¹⁰⁴⁾.

5) 근골격계질환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사용된 근골격계 질환은 腰痛, 脚氣, 百節痠疼이 있다.

腰痛은 外形篇 腰에서 허리가 구부러져 펼 수 없는 증상에 委中에서 출혈하여 치료한다고 되어 있고⁽¹⁰⁵⁾, 허리와 등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오금 중간에 푸르고 붉은 낙맥을 출혈시켜 치료한다고 되어 있으며⁽¹⁰⁶⁾, 腰痛에는 崑崙과 委中穴을 출혈 시킨다고 되어있다⁽¹⁰⁷⁾.

脚氣는 外形篇 足에서 脚氣病은 기가 막혀서 생긴 병이므로 막혀서 왕성해졌을 때 악혈을 빼내야 하는데, 열이 나는 경우에는 침으로 찔러서 피를

빼내야 한다고 되어있다⁽¹⁰⁸⁾.

百節痠疼은 모든 뼈마디가 쭈시고 아프면서 감각이 없을 때는 삼릉침으로 絕骨穴을 찔러 피를 빼내어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다⁽¹⁰⁹⁾.

Table 4. 韓方疾病分類와 刺絡療法이 사용된 병증

疾病分類	東醫寶鑑에 刺絡療法이 사용된 병증
內科	頭痛 搭顛腫 卒中風 霍亂 傷寒 不思食 瘡疾 大頭瘟
外科, 皮膚科	疔 濕癬 腫瘡 凍瘡 杖傷 狂犬咬人 衄 被物撞打 目赤腫腎 障腎
眼耳鼻咽喉科, 齒科	努肉攀睛 爛弦風 雀目 暴盲 眼腫痛 舌腫 重舌 口瘡 落齒 咽喉急閉 牙關不開
小兒科	小兒初生救急(卽死, 馬牙, 赤遊) 丹毒 癩病
筋骨格	腰痛 脚氣 百節痠疼

Table 4에서 보듯이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은 내과 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치과, 근골격 질환에 사용되었다.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적용된 질환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救急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자락요법이 사용된 내과질환을 보면 그 중 卒中風에 정신을 잃고 人事不省됐을 때, 傷寒에 크게 열이 나서 멈추지 않을 때, 溫病도 머리가 붓는 大頭瘟이 발생했을 때, 絞腸沙로 수족이 싸늘하고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발생했을

(100) 舌腫難言, 取廉泉金津玉液, 各以三稜出血. 又取天突少商然谷風府.[綱目] -外形篇 口舌-

(101) 凡舌腫脹甚, 先刺舌尖或舌上, 或舌傍出血. 惟舌下廉泉穴, 禁鍼.[回春] -外形篇 口舌-

(102) 舌腫如猪胞, 以鍼刺舌下兩傍大脈, 血出卽消. 切勿刺中央脈, 血不止則死. 若誤刺, 以銅筋火燒烙之, 或醋調百草霜塗之, 須臾自消, 此患, 人多不識, 失治則死.[得效] -外形篇 口舌-

(103) 一老人舌根腫起, 漸至滿口, 勢甚凶. 戴人曰, 血實者宜決之. 以鈹鍼日砭八九次, 出血約二三盞, 漸覺腫消痛減. 夫舌者, 心之外候, 心主血, 故血出而愈.[子和] -外形篇 口舌-

(104) 又方, 雄鷄糞雌鷄糞各十四顆, 右焙乾, 研末, 入麝香少許, 先於齒不生處, 以鍼刺令血出, 糝藥. 老人二十日, 少者十日, 當出. 不拘傷損及自落者, 皆生.[千金] -外形篇 牙齒-

(105) 腰曲不能伸, 鍼委中出血, 立愈.[丹心] -外形篇 腰-

(106) 腰背痛, 以鍼決膝腰句畫中青赤絡脈出血, 便差.[得效] -外形篇 腰部-

(107) 腰痛, 崑崙委中出血, 又取腎俞中膂俞腰俞.[綱目] -外形篇 腰-

(108) 脚氣是爲壅疾, 治以宣通之劑, 使氣不能成壅. 壅既成而盛者, 砭惡血而去其重勢. 經曰, 蓄則腫熱, 砭射之後, 以藥治之.[綱目] -外形篇 足-

(109) 百節痠疼, 實無所知, 以三稜鍼刺絕骨出血, 立愈.[東垣] -雜病篇 風-

때, 搭顛腫이 발생하여 그 부은 것이 박 모양이 된 상황 등이 위급상황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또 소아과 질환에서는 小兒가 갓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救急상황에서 자락요법을 사용했는데 小兒가 갓 태어나서 곧 죽는 경우와 小兒가 갓 태어나서 입을 다물고 젖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 갓 태어나서 온몸에 丹毒이 발생하는 경우, 癩疾이 발작한 경우 등이 위급상황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적용된 질환의 다른 특징은 五臟 六腑의 병보다는 외과나 안이비인후과 치과 질환 등 인체의 九竅, 피부 질환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자락요법이 사용된 각과 질환명 중에 오장이나 육부의 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질환명은 하나도 없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외과의 疔 濕癬 廉瘡 凍疔 濕癬 廉瘡 凍瘡 杖傷 狂犬咬人이나 안이비인후, 치과의 衄 被物撞打 目赤腫 瞽 障瞽 努肉攀睛 爛弦風 雀目 暴盲 眼腫痛 舌腫 重舌 口瘡 落齒 咽喉急閉 牙關不開에 자락요법이 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을 人身의 裏病을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表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이 적용된 질환의 특징은 통증질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근골

격계 질환에서 腰痛이 심해 허리가 구부러져 펴 수도 없는 증상이나 腰痛 뿐 아니라 背痛까지 같이 오는 증상, 脚氣病의 病邪가 왕성해져 통증과 함께 열이 나는 증상, 모든 뼈마디마디가 쭈시고 아프면서 감각까지 없을 때에 자락요법이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예로 보았을 때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은 근골격계에 적용되었을 때는 통증을 제어하는 요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6. 자락부위에 따른 자락요법

1) 경혈 및 경외기혈을 사용한 자락요법

內景篇 血에서 衄不止에 氣衝을 사용한 내용이 있다⁽¹¹⁰⁾. 外形篇 안에서는 眼暴赤腫痛에 神庭, 上星, 顛會, 前頂, 百會를 사용했고⁽¹¹¹⁾, 障翳에 睛明, 四白, 太陽, 百會, 商陽, 厲兌, 光明을 사용했으며⁽¹¹²⁾, 努肉攀睛에 睛明, 風池, 期門, 太陽을 사용했다⁽¹¹³⁾. 또 雀目に 神庭, 上星, 前頂, 百會, 睛明을 사용했으며⁽¹¹⁴⁾, 眼腫痛에 八關穴을 사용한 내용이 있다⁽¹¹⁵⁾. 外形篇 口舌에는 舌腫難語에 廉泉, 金津, 玉液을 사용했고⁽¹¹⁶⁾, 口瘡에 金津, 玉液을 사용한 내용이 있다⁽¹¹⁷⁾. 外形篇 咽喉에서는 牙關不開에 陽靈을 사용했으며⁽¹¹⁸⁾, 外形篇 腰에서는 腰痛에 委中과 崑崙을 사용했다⁽¹¹⁹⁾⁽¹²⁰⁾. 雜病篇 風에서는 百節痠疼에 絕骨⁽¹²¹⁾, 卒中風에 十井穴을 사용으며⁽¹²²⁾. 雜病篇 寒에

(110) 衄不止, 以三稜針於氣衝出血, 立愈.[東垣] -內景篇 血-

(111) 眼暴赤腫痛, 取神庭上星顛會前頂百會, 出血即愈. 又取光明地五會[綱目] -外形篇 眼-

(112) 諸障翳, 取睛明四白太陽百會商陽厲兌光明, 各出血. 合谷三里命門肝俞光明, 各灸之.[綱目]-外形篇 眼-

(113) 努肉攀睛, 取睛明風池期門太陽, 出血.[綱目] -外形篇 眼-

(114) 雀目, 取神庭上星前頂百會睛明, 出血即愈. 又取肝俞照海.[綱目] -外形篇 眼-

(115) 眼腫痛, 睛欲出, 須八關大刺, 手十指間出血, 即愈.[易老] -外形篇 眼-

(116) 舌腫難言, 取廉泉金津玉液, 各以三稜出血. 又取天突少商然谷風府.[綱目] -外形篇 口舌-

(117) 口瘡, 取承漿合谷人中長強. 又取金津玉液, 各出血.[綱目] -外形篇 口舌-

(118) 牙關不開, 取陽靈穴出血, 即愈.[得效] -外形篇 咽喉-

(119) 腰曲不能伸, 鍼委中出血, 立愈.[丹心] -外形篇 腰-

(120) 腰痛, 崑崙委中出血, 又取腎俞中膂俞腰俞.[綱目] -外形篇 腰-

(121) 百節痠疼, 實無所知, 以三稜鍼刺絕骨出血, 立愈.[東垣] -雜病篇 風-

(122) 卒中昏倒不省, 牙噤涎潮, 口眼喎斜, 精神恍惚, 倉卒之際, 以手大指掐刻人中即省. 或急令人將病者兩手兩足, 從上而下, 頻頻趕出四肢痰氣即散, 免致攻心即醒. 或急以三稜鍼, 刺手十指甲角十井穴, 將去惡血, 就以氣鍼刺合谷二穴人中一穴, 皆是良法. 如未效, 用通關散吹鼻, 即提起頭頂髮, 候有嚏可治. 如口噤不開, 以破棺散擦之口即開, 多灌香油加麝香一二分, 或用薑汁及攝生

서는 傷寒大熱에 陷谷, 八關穴을 사용했다⁽¹²³⁾. 雜病篇 霍亂에서는 委中, 十指頭를 사용했으며⁽¹²⁴⁾⁽¹²⁵⁾, 雜病篇 內傷에서는 不思食에 然谷을 사용했다⁽¹²⁶⁾. 雜病篇 瘡瘍에서는 瘡疾에 十指間을 사용했으며⁽¹²⁷⁾, 雜病篇 救急에서는 絞腸沙에 十指背를 사용했다⁽¹²⁸⁾.

2) 락맥을 사용한 자락요법

外形篇 頭에서 頭痛에 수족에 있는 血絡을 사용했고⁽¹²⁹⁾, 外形篇 腰에서 오금의 靑赤한 락맥을 사용했다⁽¹³⁰⁾. 雜病篇 瘡瘍에서 瘡疾에 사지말단에 孫絡을 사용했으며⁽¹³¹⁾⁽¹³²⁾, 雜病篇 霍亂에서 乾霍亂에 靑筋을 사용했으며⁽¹³³⁾, 雜病篇 救急에서 絞腸沙에

兩臂腕中の 黑色이 된 靑筋을 사용했다⁽¹³⁴⁾. 또 雜病篇 小兒에서는 癩病에 귀 뒤의 靑筋을 사용한 내용이 있다⁽¹³⁵⁾.

3) 병소근위의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락

外形篇 口舌에서는 舌腫에 舌尖, 舌上, 舌傍을 출혈시켰고⁽¹³⁶⁾, 舌下에 兩方 大脈을 출혈시켰다⁽¹³⁷⁾. 外形篇 牙齒에서는 落齒에 이가 빠지고 나지 않는 곳을 시켰고⁽¹³⁸⁾, 外形篇 眼에서는 爛弦風에 눈 주위를 출혈시켰다⁽¹³⁹⁾. 雜病篇 癰疽에서는 紅絲疔의 환부인 붉은 선을 출혈시켰고⁽¹⁴⁰⁾⁽¹⁴¹⁾, 雜病篇 小兒에서 豆疔에 豆疔의 끝을 출혈시켰으며⁽¹⁴²⁾, 雜病篇

飲之類. 若風痰壅結, 諸藥不效, 奪命散一服立愈.[醫鑑] - 雜病篇 風-

- (123) 傷寒大熱不止, 取曲池瀉絕骨補陷谷出血八關大刺十指間出血.[易老] - 雜病篇 寒-
- (124) 乾霍亂, 刺委中穴名出血, 或十指頭諸經非穴, 出血, 皆是良法.[正傳] - 雜病篇 霍亂-
- (125) 乾霍亂者, 氣痞於中, 吐利不得, 所傷之物壅閉正氣, 關格陰陽, 煩躁喘脹者, 必死, 急用吐法, 鍼委中穴名出血, 兼服治中湯. 方見寒門 或藿香正氣散, 必效.[入門] - 雜病篇 霍亂-
- (126) 全不思食, 取然谷出血, 立飢. - 雜病篇 內傷-
- (127) 諸瘡而脈不見, 刺十指間出血, 血去必已, 先視身之赤如小豆者, 盡取之. - 雜病篇 瘡瘍-
- (128) 有陰陽二證, 陰沙腹痛而手足冷, 看其身上有小紅點, 以香油燈點火, 燒於紅點上, 令其煖爆, 或服葱豉湯, 汗出即愈. 陽沙腹痛而手足煖, 以鍼刺其十指背, 近爪甲半分許, 血出即安. 先自兩臂按摩, 下其惡血, 令聚指頭, 血出爲好.[入門] - 雜病篇 救急-
- (129) 一老婦, 久患頭痛, 因視其手足, 有血絡皆紫黑, 遂用針刺, 出血如墨汁, 後刺受病之經, 得全愈[綱目] - 外形篇 頭-
- (130) 腰背痛, 以鍼決膝腰句畫中靑赤絡脈出血, 便差.[得效] - 外形篇 腰部-
- (131) 瘡之且發也, 陰陽之且移也, 必從四末始也, 陽已傷, 陰從之, 故先其時堅束其處, 審候見之, 在孫絡盛堅而血者, 皆取之.[內經] - 雜病篇 瘡瘍-
- (132) 謂用三稜鍼, 視孫絡出血也.[正傳] - 雜病篇 瘡瘍-
- (133) 乾霍亂者, 乃寒濕太甚, 脾被絆而不能動, 氣被鬱而不能行, 所以卒痛而手足厥冷, 俗名絞腸沙者, 蓋言痛之甚也. 北方刺靑筋以出氣血, 南方刮胸背手足以行氣血, 俱能散病. 然出氣血, 不如行氣血之爲愈也.[丹心] - 雜病篇 霍亂-
- (134) 患病之人, 兩臂腕中, 有筋必致黑色, 用砂鍼擊刺出紫黑血, 痛即止神效.[十三方] - 雜病篇 救急-
- (135) 癩病方萌, 耳後高骨間必有靑紋, 紛紛如線, 見之急用瓜破, 須令血出, 啼叫尤得氣通, 易效也.[直小] - 雜病篇 小兒-
- (136) 凡舌腫甚, 先刺舌尖或舌上, 或舌傍出血. 惟舌下廉泉穴, 禁鍼[回春] - 外形篇 口舌-
- (137) 舌腫如猪胞, 以鍼刺舌下兩傍大脈, 血出即消. 切勿刺中央脈, 血不止則死. 若誤刺, 以銅筋火燒烙之, 或醋調百草霜塗之, 須臾自消, 此患, 人多不識, 失治則死.[得效] - 外形篇 口舌-
- (138) 又方, 雄鷄黃雌鷄黃各十四顆, 右焙乾, 研末, 入麝香少許, 先於齒不生處, 以鍼刺令血出, 糝藥. 老人二十日, 少者十日, 當出不拘傷損及自落者, 皆生.[千金] - 外形篇 牙齒-
- (139) 爛弦風, 取大骨空, 灸九壯, 以口吹火滅. 小骨空. 灸七壯, 亦吹火滅. 又以三稜鍼刺眶外出血, 即愈.[綱目] - 外形篇 眼-
- (140) 疔瘡, 或有一條如紅線, 直上倉卒之際, 急用鍼於紅線所至處, 刺出毒血, 然後以蟾酥乳香等膏, 於疔瘡內塗之, 鍼時以病者知痛出血爲好, 否則紅線入腹, 必致危殆.[綱目] - 雜病篇 癰疽-
- (141) 疔生兩足, 多有紅絲入臍, 疔生兩手, 多有紅絲至心, 疔生面部, 多有紅絲入喉者, 俱難治, 急鍼其絲出血, 以泄其毒, 方可保生. [入門] - 雜病篇 癰疽
- (142) 起眼時, 有痘長大而紫黑, 名曰痘疔, 把住痘瘡令不起, 失治則死, 急用保元湯, 方見下 加鼠粘子荊芥穗芩連並酒炒, 外用銀簪挑破疔頭, 令父母吮去惡血, 或綿裹指甲, 掐去惡血. 蓋痘破而毒氣發泄故也. 仍用雄黃末一錢, 調臘脂汁令濃, 點疔痘上, 立見紅活. 雄黃拔毒, 臘脂活血也.[醫鑑] - 雜病篇 小兒-

婦人에서는 小兒初生丹毒에서 붉은 환부 주위를 따라 출혈시킨 내용이 있다⁽¹⁴³⁾.

4) 병소원위의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락

外形篇 眼에서 暴盲不見에 鼻中을 출혈시켰고⁽¹⁴⁴⁾, 目赤腫瞖에 鼻孔을 출혈시켰다⁽¹⁴⁵⁾. 外形篇 咽喉에서 咽喉急閉에 鼻孔을 출혈시켰고⁽¹⁴⁶⁾, 外形篇 眼에서 搭顫腫에 비중을 출혈시킨 내용이 있다⁽¹⁴⁷⁾.

Table 5. 병증과 刺絡 經穴 및 經外奇穴

병증	刺絡 經穴 및 經外奇穴
衄不止	氣衝
眼暴赤腫痛	神庭 上星 顙會 前頂 百會
諸障瞖	睛明 四白 太陽 百會 商陽 厲兌 光明
努肉攀睛	睛明 風池 期門 太陽
雀目	神庭 上星 前頂 百會 睛明
眼腫痛睛欲出	八關
口瘡	金津 玉液
舌腫難言	廉泉 金津 玉液
牙關不開	陽靈
腰曲不能伸	委中
腰痛	崑崙 委中
百節痠疼	絕骨
卒中	十井穴
乾霍亂	委中 十指頭
傷寒大熱不止	陷谷, 八關
全不思食	然谷
瘡疾	十指間

Table 5를 보면 동의보감에서 자락요법에 사용된 經穴과 經外奇穴은 氣衝, 神庭, 上星, 氣衝, 顙會, 前頂, 百會, 精明, 四白, 太陽, 商陽, 厲兌, 光明, 風池, 期門, 八關, 金津 玉液, 廉泉 陽靈, 委中, 崑崙, 絕骨, 十井, 陷谷, 然谷 등이었다. 그중에 經穴은 氣衝, 神庭, 上星, 神庭, 顙會, 前頂, 百會, 精明, 四白, 商陽, 厲兌, 光明, 風池, 期門, 廉泉, 委中, 崑崙, 絕骨, 十井, 陷谷, 然谷 등이었고, 經外奇穴은 金津, 玉液, 陽靈, 八關, 太陽 등이었다.

Table 6을 보면 氣衝은 衄不止에 사용되었고, 神庭은 眼暴赤腫痛, 雀目に 사용되었다. 上星은 眼暴赤腫痛, 雀目に 사용되었고, 顙會은 眼暴赤腫痛에 사용되었다. 前頂은 眼暴赤腫痛, 雀目に 사용되었고, 百會는 眼暴赤腫痛, 諸障瞖, 雀目に 사용되었다. 睛明은 諸障瞖, 努肉攀睛, 雀目に 사용되었고, 四白은 諸障瞖에 사용되었다. 太陽은 諸障瞖, 努肉攀睛에 사용되었고, 商陽은 諸障瞖에 사용되었다. 厲兌은 諸障瞖에 사용되었고, 光明은 諸障瞖에 사용되었다. 風池는 努肉攀睛에 사용되었고, 期門은 努肉攀睛에 사용되었다. 八關은 眼腫痛睛欲出, 傷寒大熱不止, 瘡疾에 사용되었고, 金津는 口瘡, 舌腫難言에 사용되었다. 玉液는 口瘡, 舌腫難言에 사용되었고, 廉泉는 舌腫難言에 사용되었다. 陽靈穴은 牙關不開에 사용되었고, 委中은 腰曲不能伸, 腰痛, 乾霍亂에 사용되었다. 崑崙은 腰痛에 사용되었고, 絕骨은 百節痠疼에 사용되었다. 十井穴은 卒中에 사용되었고, 陷谷은 傷寒大熱不止에 사용되었다. 十指頭는 乾霍亂에 사용되었고, 然谷은 全不思食에 사용되었다.

(143) 小兒初生, 遍體發丹毒, 赤腫遊走, 若入腹入腎則必死, 名曰赤遊. 乃胎毒也. 宜以細鍼或砂鍼, 隨赤暈周圍刺出血, 最妙. 仍以芭蕉汁蟬蛻汁, 塗之. -雜病篇 婦人-

(144) 暴盲不見物, 鍼攢竹, 及頂前五穴. 又刺鼻中, 大出血, 立明.[子和] -外形篇 眼-

(145) 目赤腫瞖, 羞明隱澁, 取上星百會攢竹絲竹空睛明瞳子膠太陽合谷, 又以草莖刺鼻孔, 出血數升, 即愈.[子和] -外形篇 眼-

(146) 火鬱則發之. 砭刺出血, 即汗之之義也, 血出多則愈. 有鍼瘡者, 薑汁調熱水時時呷之. 凡關上血泡, 最宜鍼, 關下不見者, 令病人含水一口, 用蘆管尖刺鼻孔出血, 妙.[入門] -外形篇 咽喉-

(147) 一人頭項偏腫, 連一目, 若半壺, 其脈洪大. 戴人曰, 內經云, 面腫者風. 此風乘陽明經也, 氣血俱多, 風腫宜汗. 先與通聖散去硝黃, 入薑葱豉同煎服, 微汗. 以草莖刺鼻中出血, 其腫立消.[子和] -外形篇 面-

Table 6. 刺絡療法에 사용된 經穴, 經外奇穴에 따른 병증

	衄不止	眼暴赤腫痛	諸障腎	努肉攀睛	雀目	眼腫痛睛欲出	口瘡	舌腫難言	牙關不開	腰曲不能伸	腰痛	百節痠疼	卒中	乾霍亂	傷寒大熱不止	全不思食	瘧疾
氣衝	○																
神庭		○			○												
上星		○			○												
顙會		○															
前頂		○			○												
百會		○	○		○												
精明			○	○	○												
四白			○														
太陽			○	○													
商陽			○														
厲兌			○														
光明			○														
風池				○													
期門				○													
八關						○									○		○
金津							○	○									
玉液							○	○									
廉泉								○									
陽靈									○								
委中									○	○				○			
崑崙										○							
絕骨											○						
十井												○					
陷谷															○		
十指頭														○			
然谷																	○

또 Table 6을 보면 眼科疾患에 사용된 경혈은 神庭, 上星, 神聖, 前頂, 百會, 精明, 四白, 太陽, 商陽, 厲兌, 光明, 風池, 期門, 八關이며 期門과 八關을 除外한 經穴은 모두 頭部 面部 頸項部에 위치한 혈위이다. 또 口舌疾患은 金津, 玉液, 廉泉등이 사용되어졌는데 近位取穴의 原理에 의해 사용되어졌고, 委中은 要部疾患 및 霍亂에 사용되어졌는데

이는 膀胱經取穴로 사료되며, 努肉攀睛의 期門은 肝經과의 聯關性을 고려한 취혈로 사료된다. 경외 기혈의 취혈은 太陽과 金津, 玉液이 사용된 근위취혈의 방법에 의한 취혈도 있고, 霍亂에 十指頭의 사용과 傷寒, 瘧疾에 八關을 사용한 것은 치료유효 혈위 취혈로 사료된다. 즉 자락요법에 사용되는 경혈과 경외기혈은 환부근처의 근위취혈과, 경락, 장

부 관련의 원위취혈의 원칙과 이와는 별도의 치료 유효혈위에 사용되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원리는 락맥이나 병소근위의 신체의 일정 부위, 병소원위의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락라는 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의 적용부위에 따라 환부를 자락하기도 하였고 환부가 아닌 곳에 자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혈락을 자락하기도 하였고 혈락이 아닌 부위를 자락하기도 하였다. 즉 동의보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혈락 외에도 환부와 환부가 아닌 부위까지도 자락하였고, 이는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의 적용범위를 邪氣가 血絡에 있다는 內經의 원칙에서 확대하여 인식하였고, 치료에 유효성이 있는 부위를 자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락요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락맥을 자침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락맥은 주요한 것으로 十五絡脈, 孫絡, 浮絡, 血絡등이 있다. 락맥에서 分出한 細梳한 支脈을 孫絡이라 칭하고, 락맥 가운데 滲透에 浮現된 것을 浮絡이라 칭하며, 락맥 가운데 皮膚에 노출된 細小한 血管을 血絡이라 칭한다. 자락요법은 특히 혈락등을 포함한 細小한 絡脈을 자락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을 시행하기에 선행적으로 血絡의 色과 形態를 觀察하였다. 血絡의 色은 紫黑色, 青色, 青赤色, 黑色등이었으며, 血絡의 形態는 線과 같거나 小豆 형태인 것을 관찰하고 자락하였다. 이는 혈락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誤刺를 피하고 정확한 자락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락요법은 황제내경에서부터 鋒鍼을 중심으로 한 삼릉침이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다. 鋒鍼은 길이가 一寸 六分이며, 날카로운 3개의 面이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출혈시켜서 痼疾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침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에 사용하는 도구로 봉침의 발전된 형태인 삼릉침은 물론 검모양의 鈹鍼, 얇은 細鍼 등의 금속의 침을 사용하였

다. 또 일상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들, 도자기파편, 풀대가지, 갈대관의 침부 등을 사용하였다. 또 신체의 일부인 손톱등과 생물인 수질까지 자락요법에 사용하였다. 이는 환자의 상태, 연령, 병증, 자락부위 등을 고려하여 자락의 도구를 선택하여 자락요법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락요법은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도구로 혈락을 자침하여 혈을 방출시키는 행위로 치료효과를 얻는 침구방법이다. 자락요법이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의 유의사항으로 혈소하거나 혈허한 사람을 자침해서 출혈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소양, 태음, 소음경 등의 혈이 적은 경락에서의 출혈을 금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자락요법의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자락요법의 유의사항과 부작용을 제시함으로써 자락요법의 안전성을 증대시켜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원에서 자락요법이 적용되는 병증은 운동기계 병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어혈병증과 급체 등이다⁵⁾.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의 적응증으로 내과에서는 頭痛, 搭顛腫, 中風, 霍亂, 瘧疾, 溫病 등, 外科는 疔, 濕癬, 腫瘡, 凍瘡, 杖傷 등, 안이비인후과 치과에는 衄, 目赤, 障翳, 努肉, 攀睛, 雀目, 暴盲, 舌腫, 重舌, 咽喉閉 등, 소아과는 小兒初生救急, 丹毒, 癩病 등, 근골격질환은 腰痛, 脚氣, 百節痠疼 등이었다. 현재에 비해 자락요법의 적용범위가 더 넓고 다양했다. 현재에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자락요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자락요법은 혈락을 비롯한 락맥을 자락하여 혈액을 방출하는 요법이다. 동의보감에서는 血絡을 자락하기도 하였지만 경혈과 경외기혈을 이용하여 자락하는 방법도 있었다. 경혈과 경외기혈은 별도

로 사용되어진 경우도 있고 동일한 병증에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즉 경혈과 경외기혈의 차이 보다는 치료유효성측면에서 유용한 혈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穴은 眼疾患에 精明, 四白, 神庭, 上星, 太陽 등, 舌疾患에 廉泉, 金津, 玉液등 이 사용된 것에서 近位取穴의 원칙과 眼腫痛에서 八關, 腰痛의 委中, 霍亂의 委中 등을 사용한 것에서 臟腑와 經絡을 이용한 遠位取穴의 원칙이 적용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 자락요법의 시행에서 穴의 선혈은 구체적으로 경혈명을 제시하고 있어서 임상적용에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편의성이 강조되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자락요법의 시행부위를 혈락과 경혈 및 경외기혈에 국한시켜 시술하는 것은 아니었다. 舌腫에 舌尖과 舌上 등을 자락한 것이나 落齒에서 齒牙가 탈락한 부분을 자락한 것 등에서 病所를 직접 刺絡하기도 하였다. 또 暴盲에 鼻中을 刺絡하기도 하고, 咽喉火鬱에 鼻孔을 刺絡한 것 등에서 血絡도 아니고, 경혈 및 경외기혈, 환부도 아닌 곳에서 자락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락요법의 적용부위를 혈락이나 기타 부위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락요법의 부위를 한정하기 보다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부위라면 부위구분을 두지 않고 자락요법의 적용부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락부위 선정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 생각된다.

동의보감의 자락요법의 관련 조문을 분류하고 살펴 본 결과 동의보감의 자락요법은 혈락의 부위, 자락도구, 유의사항 및 부작용, 병증, 경혈, 경외기혈, 자락부위 등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술하여 임상에서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증대시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락요법을 치료유효적인 측면에서 근거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법으로 연구하고 임상적 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III. 結 論

동의보감에 나타난 자락요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刺絡部位 絡脈의 選擇基準은 黑色, 靑赤色, 紫黑色, 黑色, 靑色등의 色과 線, 小豆등의 形態였다.
2. 刺絡의 도구로는 患者의 狀態, 刺絡部位등에 따라 三稜針, 草莖, 鍼鈞, 鈹鍼, 蘆管尖, 砂鍼, 指, 瓜, 細鍼, 螞鍼, 銀簪이 사용되었다.
3. 刺絡療法을 施行하는데 있어 留意事項과 副作用이 提示되었다.
4. 刺絡療法은 頭痛, 衄, 腰痛, 凍瘡, 卒中昏倒, 癩病 등의 병증에 廣範圍하게 적용되었다.
5. 刺絡療法은 氣衝, 神庭, 上星, 神庭, 顙會, 前頂, 百會, 精明, 四白, 商陽, 厲兌, 光明, 風池, 期門, 廉泉, 委中, 崑崙, 絕骨, 十井, 陷谷, 然谷등의 經穴과 金津, 玉液, 陽靈, 八關, 太陽등의 經外奇穴을 사용하여 活用되었다.
6. 주로 사용되는 刺絡療法의 部位는 血絡과 局所病所 또는 病所에서 떨어진 治療有效部位에 施術되었다.

參考文獻

1. 장명준, 이상룡. 영추 소문에 나타난 자락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5 ; 8(1) : 53-81.
2. 최용태 외. 침구학. 서울 : 집문당. 2001 : 1046.
3. 工藤訓正. 자락법. 서울 : 동양종합통신대학교육원. 1970 : 6.
4. 이윤철, 김범. 자락요법. 서울 : 아트하우스. 2009 : 16-29.
5. 한창현, 김선웅, 이승덕, 신미숙, 신선화, 최선미. 국내 자락요법 임상 실태과약을 위한 전화조사. 대한침구학회지. 2006 ; 23(6) : 175-85.
6. 한창현, 송태원, 신미숙, 신선화, 최선미. 고혈압

- 환자에서 곡운침법의 혈압강화 효과. 대한경락
경혈학회지. 2007 ; 24(1) : 27-41.
7. 이준호, 금기현. 舌鍼療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韓醫學 연구소論文集. 1992 ; 1(1) :
255-78.
 8. 임칭산. 刺絡療法이 Endotoxin으로 誘發된 血栓
症에 미치는 영향. 慶熙大學校 大學院 : 韓醫學
科 鍼灸學專攻. 1990 : 1-20.
 9. 이상룡. 刺絡療法이 血壓 및 血清成分에 미치는
影響. 慶熙大學校 大學院 : 韓醫學科 鍼灸學專
攻. 1986 : 1-24.
 10. 송형근, 송민식, 김정호, 강재희, 김영화, 김영일
외. 급성기 요통의 치료에 자락요법이 병행이
미치는 영향. 大韓鍼灸學會誌. 2004 ; 21(5) :
113-22.
 11. 이상훈. 委中穴 刺絡의 腰痛에 對한 治療效果.
大韓鍼灸學會誌. 2002 ; 19(1) : 65-75.
 12. 남창규, 이진섭. 중풍(中風)에 활용(活用)된 자
락요법(刺絡療法)에 대(對)한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4 ; 15(2)
: 145-62.
 13. 옥민근 외. 眼瞼結膜 刺絡療法(棘鍼療法)을 시
술한 中風 환자의 眼昏 치험 4例 韓方眼耳鼻咽
喉皮膚科學會誌. 2004 ; 7(3) : 107-13.
 14. 자락요법(刺絡療法)이 Microcrystalline Sodium
Urate 를 투여한 흰쥐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
大韓鍼灸學會誌. 1994 ; 11(1) : 297-308.
 15. 최영국. 刺絡療法이 鎮痛, 消炎 및 解熱에 미치
는 影響. 慶熙大學校 大學院 : 韓醫學科 鍼灸
學專攻. 1986 : 1-35.
 16. 백유상, 김도훈.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자락사
혈(刺絡瀉血) 치료법에 대한 분석. 大韓韓醫學
原典學會誌. 2006 ; 19(1) : 137-54.
 17. 조영철. 刺絡療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慶山大
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針灸學專攻. 1991 : 1-41.
 18. 이준근. 黃帝內經·素問 中 瀉血에 관한 연구.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한의학정보학과.
2008 : 1-89.